

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과 만성 파열의 자가슬픽건을 이용한 재건술 후 결과 비교 - 레크리에이션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-

A Comparison of Outcomes after Acute and Chron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s using Hamstring Tendon Autografts - Analysis of Recreational Soccer Players -

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목동병원 정형외과학교실, 국군양주병원¹

유재두 · 배인택 · 노권재 · 신상진 · 강성식 · 정덕문¹

서 론

만성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 환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결과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 급성 파열과 만성 파열의 두 군 사이에 동반 손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결과가 만성 파열군에서 열등하다는 보고가 있다. 본 연구는 레크리에이션 축구 경기 중 슬관절 외상으로 내원하여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 또는 만성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전방십자인대재건술로 치료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2002년 9월부터 2007년3월까지 급성 또는 만성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자가 슬픽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치료 후 2년 이상 추시된 5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. 평균 연령은 32세, 평균 추시기간은 28개월이었고, 급성 파열군은 32예, 만성 파열군은 24예이었다. 동반 손상 중 내측 측부인대 파열 18예, 내측 또는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26예있었다.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은 대퇴부는 두 개 흡수성 횡편으로 고정하고, 경골부는 생간섭나사로 고정 후 인대고정나사로 추가 고정하였다. 양군간의 비교는 수술 전후에 Tegner activity scale, Modified Lysholm score, IKDC (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) Standard Knee Ligament Evaluation Form, 전방전위정도는 KT-1000관절계측기를 이용하였다.

결 과

두 군 사이에 Lachman 검사, Pivot shift 검사에서 차이가 없었고, KT-1000을 이용한 최대 도수부하검사상 급성파열군은 평균 1.8 mm, 만성파열군은 평균 2.4 mm로 차이가 없었다 ($P>0.05$). Lysholm scale은 급성 파열군 평균 94.5점, 만성 파열군 평균 90.3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($P>0.05$). IKDC 등급이 정상 또는 거의 정상인 경우는 급성파열군은 92%, 만성파열군은 78%로 차이가 있었다 ($P<0.05$). Tegner activity scale은 수술 전 두 군 사이에 차이가

없었으나, 최종 추시시 만성 파열군에서 감소하였으며 ($P<0.05$), 최종 추시시 축구 경기를 지속한 경우는 급성 파열군 88%, 만성 파열군 66%로 차이가 있었다 ($P<0.05$) 2 예에서 수술 후 18개월 및 22개월에 각각 반월상연골파열로 연골판절제술을 하였다. 1례에서 축구경기 중 재손상으로 재재건술을 하였다.

결 론

레크리에이션 축구선수에서 슬픽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은 만족할 결과를 얻었으며, 만성 전방십자인대파열 환자와 급성 전방십자인대파열 환자에서 최종 추시시 슬관절 안정성의 회복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축구 경기로 복귀는 급성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환자에서 더 우수하였다.